

기사출력서비스

장흥위씨 종중 전주대 고전학연구 발전기금 2000만원 16일 기탁

기사입력 2012년 01월 13일 18시 04분 | 최종수정 2012년 01월 13일 18시 04분 | 박종덕 | jnmin@korea.com

장흥위씨 종중 전주대 고전학연구 발전기금 2000만원 쾌척 장흥위씨 도문회(회장 위두환)는 16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본부 접견실에서 '국학고전 연구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하고 기증식을 갖는다.

특정 종중이 대학의 연구에 기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국학고전분야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장흥위씨 종중은 최근 고전학 연구 기금을 조성해 전주대에 기부를 내기로 한 것은 조선후기 여암 신경준, 이재 황윤석 선생과 함께 호남의 3대 학자로 일컬어지는 존재 위백규 선생의 문집 '존재집(存齋集)'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에서 완역한 것에 대한 사의로 알려졌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사)한국고전문학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0년 4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추진하는 호남권 고전번역 거점연구소로 선정됐다.

호남권 거점연구소 지정은 호남지역의 산적한 고전을 번역·보급하고 아울러 지역의 한문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국책사업으로 30년 동안 총 7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해 전라도 장흥 출신 학자인 존재 위백규 선생의 문집 '존재집'을 완역했으며 같은해 9월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2010년도 연차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번역평가를 받아 출판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아 올 하반기에 '존재집' 6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박종덕 (jnmin@korea.com) & Copyright @2009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